

“Think How to Think”

수동적 수강생에서 문제 해결자로...

GIST 교육혁신 프로그램 'INGE', 10년의 도전

- 2016년 출범 이후 PBL·플립드 러닝 등 학생 중심 학습 문화 정착
- 공유 자전거넛지 실험 등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예산 집행까지 주도
- "자율성 높일수록 몰입도 향상"...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러닝으로 현장감 키워



▲ INGE 사업 교과목 '행동경제학 2' 수업 모습. 학생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교육혁신 프로그램인 '인재(INGE·Initiative in New GIST Education)' 사업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협력하는 학습 문화를 정착시키며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이끌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밝혔다.

'INGE' 사업은 대학지원실이 운영하는 GIST의 대표 교육혁신 프로그램으로, 교수들이 학생 참여형 수업과 프로젝트 중심 교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생각하는 법을 생각하고, 배우는 법을 배운다(Think how to Think, Learn how to Learn)'는 교육 철학 아래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교수법을 도입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총 74개 교과목이 INGE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됐다.

INGE 사업은 학생들이 수업의 수동적인 수강자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과제에 적용하고, 토론과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워 나간다.

INGE 사업 초창기부터 참여해 온 인문사회과학부 김희삼 교수(경제학)는 2016년 '행동경제학 2' 교과목을 통해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했다.

당시 수강생들은 ▲공유 우산 프로젝트 ▲설문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넛지(Nudge) 실험 ▲GIST 내 자전거 공유 시스템 도입 방안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사회실험을 직접 설계·수행하며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했다. 연구계획서 작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김 교수는 "당시에는 학생 중심 수업과 프로젝트 활동을 교과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INGE 사업은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행동경제학 2'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도전적인 과정 속에서 큰 성장을 경험했다고 회고했다.

INGE 사업은 초기 프로젝트 중심 수업에서 나아가 생성형 AI 활용 교육 등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 INGE 사업에 참여해 온 AI융합학과 송은성 교수는 '서비스러닝 프로젝트' 교과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실생활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지도해 왔다.

실제 수업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 지원 서비스, 학생 생활 편의를 높이는 기숙사 정보 공유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경험을 쌓았다.

올해 2학기에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기를 수 있는 'AI 영상 스튜디오' 교과목도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 INGE 사업 교과목 '서비스러닝 프로젝트' 수업 모습.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 교수는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일정 관리,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도록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책임감과 몰입도를 보여줬다"며 "자율성을 부여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GIST는 앞으로도 INGE 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 기반 교육과 산업·사회 연계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 사회와 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